

당선작모음

나의 이야기
개소 10주년 이벤트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오



아토피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알레르기 경험담 나누기

공감되상

그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소.

딸이 우유 알레르기를 가지고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매번 우유함유된 식단을 도시락 싸서 보냈어요. (지금은 면역치료 시작으로 첨가된 식품은 먹이고 있습니다.) 한학기동안 영양사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우유 식품군은 완전차단하며 건강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었고, 최대한 아이가 일반식과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튀김이 우유가 들어가면 아이 것은 먼저 따로 조리해주시고, 떡볶이가 나오는 날엔 따로 짜장떡볶이를 해주시고, 스프가 나오는 날엔 계란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곧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렇게 알레르기 아이를 위해 신경써주시는 담임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 조리사님들을 또 뵌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차츰 면역치료로 우유 알레르기를 극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유식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어요. 알레르기 학생 한명을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않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알레르기 경험담 나누기

공감되상

그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소.

나는 어렸을 때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다. 앓았다는 표현이 옳은진 모르겠지만 아토피로 인해 어릴 적 속앓이를 심하게 한건 확실했다. 계절이 바뀔때면 특히나 더 심하게 찾아왔다. 겨울에서 봄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면서 아토피가 온 몸에 스물스물 올라와 눈두덩이와 인중, 목에는 특히나 더 건조하면서 새빨갛게 올라왔다. 새학기가 시작된 그 시점 친구들은 그런 나에게 "재 눈화장 했나봐", "젠 입주변이 왜 새빨개? ㅋㅋ" 하며 놀려댔다.

사춘기시절 외모에 예민하던 그 시기에 하필 새학기에 불청객처럼 꼭 날 찾아왔다. 그 때는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고, 이를 앓고 있다는게 부끄러웠고, 천식으로 흡입기를 사용한 친구는 숨겨서 몰래 하곤 했다. 지금은 아이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다양한 교육도 제공되고 안심학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나의 어린시절처럼 알레르기로 인해 마음까지 상처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알레르기 경험담 나누기

공감되상

그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소.

저희 아이는 생후 50일부터 돌까지 아토피가 있었고, 지금은 세돌인데 아토피는 완치 판정 받았지만 식품알레르기가 찾아와서 아직까지 면역 치료 중입니다. 타 환아에 비해 알레르기 갯수는 많지 않아 그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힘들지만, 어린이집이든 밖에 나가면 주변에서 알레르기 친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가끔은 일상생활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입소시에 알레르기 증상, 대처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야 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까 봐 워킹맘인 저는 항상 노심초사 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아이 마음이겠죠. 친구들은 옆에서 마음껏 먹는 음식을 본인은 못먹고 쳐다만 보니까요. 저의 바람은, 못먹더라도 적어도 식재료에 '어떤' 성분이 사용되는지 표기하도록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제도화 해서 반드시 부모에게 미리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저희아이는 소량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오지 않지만 과량 복용시에는 위험합니다. 외부 식당에 가면 성분표기는 당연히 안되어 있고, 물어보면 상당수가 이상하다는 눈초리 보내기 십상 이거든요. 알레르기 환아, 환자들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알레르기 경험담 나누기

공감되상

그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소.

제 개인적으로 땅콩 먹으면 온몸이 가려워요 굵은 곳이 아주 심하게 부풀어 오르지요. 사과, 복숭아, 새우 먹으면 입술이 부풀어 올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반 여학생 사례에 견주어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입학하고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급식시간에 해당 여학생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서 부모님께 사죄까지 드리고 진땀을 뺐던 경험이 있습니다. 입학식 날 해당 여학생 부모님으로부터 아이의 아나필락시스 위험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전해 듣고도 사건을 막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5년의 교직생활에서 처음으로 1학년을 맡게 되었고 학기초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못 먹는 종류에 대해 제가 급식표를 훑어보고 못 먹는 것은 빼면 된다고 단순히 생각했던 것이 실수를 몰고 온 이유가 되었죠. 아욱국에 새우가 들어간 줄을 전혀 몰랐고 케이준 치킨샐러드에 땅콩을 갈아서 소스로 뿌렸다는 것을 장가도 안 간 제가 제대로 파악할 리 없었던 거죠. 이제 영양선생님과 조리사 분들도 해당 여학생의 증세를 다 같이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혼자 검열하고 할 필요는 없어졌네요. 정말 아이 한 명을 잡을 뻔하였습니다.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미리미리 정확히 파악하고 조심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알레르기 경험담 나누기

공감되상

그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소.

남편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특히 새우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육수를 내거나 대하철은 당연히 못 먹어요. 그래서 아이는 새우를 경험한 일이 거의 없네요. 어느 날 친정에서 새우를 본 아이는 정말 성인 2명이 먹을 정도의 양을 먹고선 "엄마, 아빠는 새우 못 먹으니깐 우린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하고 같이 저녁밥 먹자. 아빠 일 다녀와서 혼자 먹으면 외로우니깐." 하고 말 하더라고요. 어찌나 찡하고 기특하고 당황한지. 엄마인 저와 딸아이는 맛있게 먹는 새우. 남편은 못 먹는 새우. 우리집에는 못먹는 새우. 아쉽새우.



진심으로 축하드리요

20주년에
서기
다리고
있겠습니다